

“여러분의 ‘충성’ 구호에 국민행복 달려 있다”

“경주지진 문화재 피해 심각
보호 등 필요조치 적극 노력”

정세균 국회의장, 불교포럼서 강조

총무원장 자승스님 육사 방문 화랑호국사 ‘화랑오계비’ 제막 교리경시대회 응시 생도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제8회 나란다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불교교리경시대회에 응시한 생도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은 생도들의 경례 구호인 ‘충성’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28일 육사를 찾은 총무원장 스님 일행은 육사 교장 최병로 중장의 영접을 받으며 학교본부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눴다. 최병로 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육사를 위문한 것은 청담스님 이후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조국 수호를 위한 역할을 기르고 있는 생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육사 법당 화랑호국사 주지 보경 함현준 법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방



지난 9월2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불교교리경시대회에 응시한 생도들을 격려하는 총무원장 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문은 생도들에게 잊히지 않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예를 표했다. 이어 화랑호국사로 자리를 옮긴 총무원장 스님은 화랑오계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화랑오계비는 신라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설한 세속 오계(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유이신 살생유백 임

전무위)를 새긴 돌로, 올해 육사 개교 70주년을 맞아 화랑호국사 불자들이 뜻을 모아 제작했다. 글씨는 조당 이무호 서예가가 썼다. 제막식을 마친 뒤 총무원장 스님은 원통보전에서 시험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200여 명 생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먼

저 “자유분방하지만 그만큼 애국심이 염려되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며 규칙생활을 자청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특히 생도들의 경례 구호인 ‘충성(忠誠)’의 뜻을 해설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충성이란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라며 “단순히 구호로만 여기지 말고, 충성이란 단어엔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서려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생도들은 “만점자가 나오면 선물을 추가로 주겠다”는 스님의 약속과 함께 교리경시대회를 원만히 치렀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무각스님, 나란다축제를 주최한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스님(불교문화사업단장),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승원스님 등이 동행했다. 한편 같은 날 육사 외에도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에서 900여 명의 사관생도들이 교리경시대회에 참여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불국사 등 문화재 피해만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도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정책위원회와 함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지난 9월28일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재가불자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 제21차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피해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려면 정밀 실측 조사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제”라며 “보고서가 없으면 복원이 제대로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속가능 사회, 20대 국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 의장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주의를 살려내고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미 협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주의를 살리지 않으면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 힘이 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조계종단과 불교포럼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공정하고 실현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감사 선혜스님·조사 해량스님 문화연수원 사무국장 진공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월28일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에 선혜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에 해량스님,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에 진공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국장 선혜스님은 정여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쌍계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자운암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강화 정수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해량스님은 정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강원사 청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중대사자암 감원을 맡고 있다.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진공스님은 범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0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쌍계총림선원, 실상사 백장선원, 월정사 만월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높은 완성도와 실용성 갖춘 작품 대거 출품”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 이정현·이현익 ‘풍경소리’ 대상 수상작, 기념관·서울DDP 전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스님)은 지난 9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해일스님, 문화부장 정안스님,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정현·이현익 씨가 공동 출품한 찻 불병 ‘풍경소리’가 대상(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 이정현 씨는 이 자리에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풍경소리가 상용화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배예륜 씨의 목욕용품세트 ‘담도’와 조현수 씨의 액세서리 ‘팔정도’가 각각 우수상(상금 2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상금 200만원)에 조성진, 김소현, 이민우 씨가 출품한 차 거름망 ‘연·인퓨저’



‘제8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9월2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내빈과 수상자 기념촬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상금 200만원)에 이종구, 윤이정, 전민지 씨가 출품한 테이블 조형 ‘제행무상’ △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상금 200만원)에 강찬우 씨의 ‘본디나 문양 북엔드’ △서울시장상에 이예진 씨의 ‘공양’ 등 특별상 4점과 장려상(상금 100만원) 3점, 특선(상금 50만원) 6점, 입선 20점 등 총 36점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작들은 하나하나마다 정신의 삶이 투

영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는 정진의 마음 또한 가득하다”고 격려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모전에 높은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상품들이 대거 접수됐다”면서 “이는 한국전통 및 불교문화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 결과”라며 의미를 밝혔다.

한편 수상작은 오는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전시장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9월28일 중무회의)



진정스님
거창 북대선원



금인스님
공주 금륜사



원상스님
단양 마륜대총사



승제스님
부여 정각사



종봉스님
논산 생계사



성광스님
영천 부귀사



정법스님
인제 대안사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정 신

- 일시 : 불기2560(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음 9월 28일) 오후 1시
- 장소 :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설법전
- 안건 :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 당해 교구 **분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나,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량, 연행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 자격요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자 선출
 -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중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중총회법 제9조제2항, 종무원법 제6조제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총회위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 강원이나 울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할 경력
-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60(2016)년 10월 16일(일) ~ 10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결정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0월 15일(토)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 1부
(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경력 또는 안거 증명서류 1부
 - 종법 준수 각서 1부
 - 신원조회서 1부
 - 사진 (반명함판) 3매
-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60(2016)년 10월 5일(수) ~ 10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60(2016)년 10월 19일(수) ~ 10월 21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입후보자등록 · 거주승신고 · 구성원명부열람 장소**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직지사 중무소)
- **문의처**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54-429-1700)